

은혜와 진리소식

2025년 1월 5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12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께서 저처럼 작은 자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 한 지 현 -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머니를 따라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주중예배에도 참석하고 집에서도 가정예배를 드리며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새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저에게 한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저만의 방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같이 쓰고 있는 동생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지만 따로 내 방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바람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를 집에서 드리게 되면서 더 커졌습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동생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서둘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 이런 상황이 불편하였고 불만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은 저의 소원을 이루기에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집값이 폭등하여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만의 방을 갖는 것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저의 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자 저는 성도답지 않게 부정적인 말, 더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저의 부끄러운 믿음이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

든지 내가 시행하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저의 신앙 상태에 더 실망하고 자책하였습니다. 그동안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들보다 나은 믿음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청년들을 위해 기도와 권면을 하던 저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다고 고백하던 저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불평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할 날이 다가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도와주셔서 새로 이사한 집은 저희 가족이 알아본 여러 집 중에 가장 좋은 집, 그래서 포기할 뻔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의 방을 따로 가지고 꾸밀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사한 첫날 밤에 방을 도로 뺏기고 밖으로 쫓겨나는 꿈까지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제 방에서 월요축복기도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날 목사님께서 주신 설교말씀의 주제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은 먹고 살기 위하여 힘써 애쓰지 않았고, 파는 모든 곳마다 물이 나오는 우물이 되었다. 이삭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 그저 즐겁게 누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방이 맞구나!’ 실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시고 자애로우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저의 허물을, 저의 부끄러운 믿음을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려 보며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그리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불신의 말을 했던 내 모습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위해 놀라운 섭리와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대속하도록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첫사랑의 심정으로 느끼며 감사 찬송하였습니다. 주인을 인색한 주인으로 오해했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다름없던

저였지만 그럼에도 용서해주시고 도리어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 저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제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저를 선하고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저의 시선을 내가 아닌,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게 해줍니다.

이후에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응답을 보고 들으며 성도가 누리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잘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을 그 선물과 편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소속하여 교회를 섬기는 청년봉사선교회에서 회장의 중책을 맡아 봉사하도록 권면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한 직분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만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도와주겠다.”

저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저와 같은 사람도 부르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며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성도다운 삶이 과연 무엇인지 잘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체력과 청년들과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지혜와 힘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사랑을 느낍니다. 저를 거둬주게 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신령한 즐거움을 한껏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 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 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구역공과

제2권 (제6단원 : 복음전파의 사명)

(제30과) 세계 만민의 구원

- 본문 : 이사야서 2:2-4

• 요절 :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

• 찬송 : 252장(새찬송가 518장), 265장(새찬송가 516장)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사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세계 만민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여 2천년 동안 전 세계에 전파되었고 지금도 계속되어 마침내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인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 3:15).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창 12:1~3). 이 언약은 곧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고 약속하심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인간의 역사 속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분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2. 예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언약대로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던 시므온은 어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눅 2:30~32)라며 만민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 3:17)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인류를 심판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으므로 빛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요 3:21)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리를 좇는 자는 빛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3. 성령님은 만민 구원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믿는 자를 통하여 세계 만민을 구원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때 3차례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과 로마 선교 활동으로 그리스, 로마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성령충만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며 복음 전파를 훼방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의 뒤를 이은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전파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세상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구원의 소식은 2천년 동안 세계 곳곳에 전파되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시 22:27)라는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구원받은 만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세계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공산국가가 차례로 무너지거나 개혁 개방되므로 복음화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계 만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도 더욱 빨라져야 할 것입니다.